

개의 슬개골 탈구의 회고적 연구: 57례 (2003-2006)

이보라, 장하영, 김경희, 이준섭, 김구용, 김준영, 한현정, 윤현영, 김희율, 정순욱*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서 론: 슬개골 탈구는 개의 슬관절에서 야기되는 가장 일반적인 질환으로 후지의 퇴행성 관절염, 동통, 파행을 일으킨다. 특히 소형견종에서 선천성 슬개골 내측탈구가 호발되며, 치료를 위해 활차구 성형술, 지대중첩술, 경골변위술, 이완절제술, 경골절단술 등의 외과적 교정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본 보고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에서 슬개골탈구로 진단 및 치료받았던 57 환축에 대한 회고적인 보고이다.

재료 및 방법: 슬개골 탈구를 가진 57두의 환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임상증상, 신체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슬개골 탈구가 진단되었으며, 환축의 상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약물치치, 인공관절액주입, 수술적 교정 등의 치료방법이 선택되었다. 약물 치치로는 카프로펜, 글루코사민이 투여되었으며, 인공관절액으로는 하이아루론산이 관절 내 주입되었으며, 외과적 교정방법으로는 활차구성형술, 경골결절변위술, 이완절제술, 지대중첩술, 비장근두 종자골 봉합술이 환축 상태에 따라 선택되어 시술되었다.

결 과: 환축의 95%는 소형견종으로 요크셔테리어(19두, 33%), 말티즈(16두, 28%)가 가장 많았으며, 환축의 평균연령은 4년 8개월이었다. 양측성 슬개골탈구가 38두(76 슬관절)였으며, 외측탈구가 9두(12슬관절)였다. 슬개골탈구 등급은 I등급(5슬관절), 2등급(20슬관절), 3등급(47슬관절), 4등급(23슬관절)였으며, 전십자인대 파열을 동반한 경우가 5두였다. 환축 중 수술적 교정을 실시한 경우가 42 슬관절이었으며, 인공관절액을 주입한 경우가 3두였다. 수술후 정기적인 상태관찰이 이루어진 환축에서 정상보행까지 소요된 시간은 14일이었다.

임상적 의의: 슬개골탈구는 알려진 것과 같이 소형견종에서 가장 많아 발생되었으며, 내원하는 환축의 대부분은 양측성의 슬개골탈구를 보였다. 또 환축의 대부분이 3등급 및 4등급이었으며, 수술적교정이 임상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 생각된다.

*Corresponding author: swjeong@konkuk.ac.kr